

문 대통령-바이든, 소통 정상외교 시동

비핵화 협력 공감대 속 조기 정상회담 여부 주목 종전선언 언급 없어...미·중 '줄타기' 압박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로 미국 새 행정부와외교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북미협상이 장기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를 기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간 소통·협력 강화에 외교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문제가 맞물리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통화는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 나흘만인 이날 정상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 정부로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통화로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양측이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 취임 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기로 했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는 데 있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가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양측 통화내용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

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이런 언급은 바이든 당선인이 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완해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민주주의 동맹'을 앞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수할 경우 문재인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미·중 강대국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이날 통화에서 한일관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태일 열사에 무궁화장 추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고 전태일 열사 훈장 추서식에서 유가족에게 무궁화장 훈장증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태일 열사의 셋째 동생 전태리, 첫째 동생 전태삼, 문 대통령, 둘째 동생 전옥순. /연합뉴스

“국민의힘 몽니” vs “정권의 총권 우려”

여야, 2차 정당 정책토론회서 공수처 충돌

여야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공방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검찰개혁 목표는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공수처를 잘 구성하느냐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였는데 결과가 어찌 나왔나.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가”라며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다.

열린민주당 김성희 대변인은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그제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검찰을 몰아내고 계수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와 판사, 공무원을 쫓아내기 위한 기구로

약용할 것”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추미예법무부장관이 인사·수사지휘·감찰권 남용으로 올바르게 수사하려는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정부의 총권 노릇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권력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송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이전부터 준비한 기관이지만 최근 윤 총장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필요하다”고 맞섰다.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위원은 “검찰개혁 이슈는 국민 대다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들만의 이슈”라고,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우선순위로 잘못 잡았다.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검찰을 몰아내고 계수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와 판사, 공무원을 쫓아내기 위한 기구로

문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신남방 플러스’ 발표

제3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참가하는 관련 정상회의가 12일부터 15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다.

애초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에서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RCEP는 세계 인구나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이번엔 참여를 보류한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을 포괄하

게 된다. 개막 첫날인 12일에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 중국, 일본, 인도가 아세안과 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에 코로나19 등 변화한 정세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했다.

13일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 정상회의를 한다.

이어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과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개최되고, 미국·호주·뉴질랜드가 아세안 정상들과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시진핑 연내 방한 추진... ‘미 대선·코로나’ 변수

이달말·내달 초중순 가능성...외교부 “계속 협의 중”

한중간 최대 관심 사항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이 연내 성사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결과 불복과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중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소원해진 한중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북핵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오히려 한국보다 강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중순이

아니면 당분간 방한이 쉽지 않다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하이인주환 중국대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계획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도 지난달 국경감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은 올해 초부터 계속 추진됐으나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8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한국을 방문해 시 주석의 방한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한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중단됐다. /연합뉴스

다른 소식통은 “양제츠 정치국원이 당시 부산을 방문해 시 주석 방한을 조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중국 측에서는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서라도 하자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패리기’로 인한 미중 갈등과 19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상하이 제3회 국제수입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가 겹치면서 시 주석의 방한 날짜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의 화상회의가 끝나고 내년 일정을 준비하기 직전인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중순을 시 주석의 방한 적기로 보고 있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한국 또한 100여명에 육박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이재명 지지층 겹친다? ‘호남’ 이낙연 영향 없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대권’ 여론조사 1위에 오른 것과 맞물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중도 성향의 민심이 이 지사에서 윤 총장에게 옮겨갔다는 분석과 함께,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양강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쿠키뉴스 의뢰로 진행한 차기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24.7%, 이낙연 대표는 22.2%, 이재명 지사는 18.4%를 각각 기록했다.

최근 다른 조사들에서 이 지사가 20%대 초반대로 이 대표와 수위 다툼을 벌이고, 윤 총장이 10% 중후반대에 머물렀던 흐름을 고려하면 이 지사 하락 폭이 그대로 윤 총장 상승에 반영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호남이란 ‘콘크리트 지지층’을 지닌 데다 이 지사에 비해 친문계의 호감도가 높은 이 대표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의 참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에 돌입한다. 이날 오전 청와대 직원들이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 마련된 화상 정상회의장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airpurifier **DK**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